

## 정답과 해설

정답 ③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 2022학년도 세계사 수능특강 연계 ※

(가) : 정치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에 있다. …(중략)…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요구되므로, 인간은 개인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손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 권력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또다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인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나) : 인간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 데 합의하는 것이다. …(중략)… 만일 정부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진다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의 경우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

[A] : 신은 사람들이 **왕을 신의 대리로서 존경**할 것을 희망하였다. 신민으로서 태어난 자는 누구이건 왕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신이 희망하는 바이다.

[B] : 동일한 인간이 또는 동일한 단체가 **세 가지 권력, 즉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과 공공의 결정을 실행하는 권력, 범죄나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하는 권력**을 모두 행사한다면 모두 망치고 말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 권력을 줘야 한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등을 통해 (가) 인물은 **홉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가) 인물은 자연 상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나아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주장한 홉스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 권력을 줘야 한다**.

: (가) 인물은 자연 상태로의 회귀를 막으려면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인간이 평화를 위해 사회 계약을 맺고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지배자에게 양도한다고 주장한 홉스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

등을 통해 (나) 인물은 **로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

: (나) 인물은 인간의 자연권으로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인물은 생명·자유·재산권을 자연권으로 규정한 로크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

: (나) 인물은 자연권 보장을 위해 정치적 권리를 위임받은 정부가 그 기능을 행하지 못하면 타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인물은 저항권을 규정하고 계약을 위반한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명예혁명을 정당화)한 로크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선지 분석 |

★ **'왕을 신의 대리로서 존경'** 등을 통해 주장 [A]는 왕권신수설과 관련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홉스와 로크는 모두 사회 계약설을 주장한 인물이므로, 주장 [A]에 대해서는 모두 비동의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설명 : 앞서 살펴본 대로, 홉스는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절대 왕정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았다'는 것은 홉스가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홉스는 '계약을 통해 개인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양도받은' 절대 군주를 옹호한 것이지,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절대 군주를 옹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홉스도 왕권신수설에 대해서는 비동의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세 가지 권력,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과 공공의 결정을 실행하는 권력, 범죄나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하는 권력'** 등을 통해 주장 [B]는 삼권분립과 관련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홉스는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 권력을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권력의 분립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홉스는 주장 [B]에 대해 비동의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나)
[A]	비동의	비동의
[B]	비동의	?

※ 로크는 권력의 분립에 대해 동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권분립(입법과 행정의 분립)을 주장하였습니다.

∴ ③